

KCGS·ISS, 조원태 회장 한진칼 사내이사 연임 권고

“조회장·하부사장, 장기적 주주가치 제고에 부합”

투명경영·주주친화 정책 효과
“회사에 도움되는 경험·경력 가져”

3자연합, 경영권분쟁 장기전 준비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오는 27일 열리는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연임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한진그룹 임직원들이 ‘조원태 회장 구하기’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에 이어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도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전에 대해 찬성을 권고하며 긍정적인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다만,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KCGI·반도건설의 3자 연합측이 지속적으로 지분을 확보하고 있어 그룹 경영권을 놓고서는 장기전도 예상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ISS는 최근 회원 사들에 보낸 한진칼 주주총회 의안 분석(의결권 권고) 의견에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전에 대해 찬성을 권

고했다. 신규 사내이사로 추천된 하은용 대한항공 재무부 부사장에 대해서도 찬성을 권고했다.

ISS는 조 회장과 하 부사장에 대해 “회사에 도움이 되는 경험과 경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외이사에서는 회사측에서 추천한 인사들 중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과 박영석 서강대 경영대학 교수, 최윤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을 냈다.

다만 임춘수 마이다스PE 대표와 이동명 법무법인 처음 대표변호사에 대해서는 ‘경험이 중복되는 후보자’라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앞서 한국기업지배구조원도 지난 13일 고객사에 발송한 한진칼 주주총회 의안 보고서에서 “한진칼 이사회 안이 보다 기업의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해 찬성투표를 권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3자 연합의 주주 제안 후보에 대해서는 ‘불행사’를 권고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국민연금의 의안분석자문기관으로 지난 2015년부터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고 있어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다. 현재 국민연금이 한진칼의 지분 2.9%를 보유하고 있어 조 회장과 조현아 3자 연합의 지분율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긍정적 평가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조 회장의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다. 조 회장은 지난달 6일 대한

항공 이사회를 열어 지배구조 투명성을 위한 주주 친화적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 주총을 앞두고 한진그룹 임직원들이 ‘조원태 회장 구하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는 점도 조 회장의 연임에 힘을 실는다. 현재 한진그룹 임직원을 중심으로 최근 SNS 오픈 채팅방이 개설됐다. ‘한진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제목으로 개설된 오픈 채팅방에는 이날 현재 110명가량 참여하고 있으며, 3자 주주연합으로부터 회사를 지킬 아이디어를 활발히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3자 주주연합은 조 회장의 연임을 막는 한편 그룹 경영권을 놓고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자 주주연합측은 KCGI가 산하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분을 매입해 17.84%까지 확보했다. 반도건설도 대호개발과 한영개발을 통해 올 들어 총 791만9000주를 사들여 지분율을 13.3%까지 끌어올렸다.

이로써 조 회장측은 조 전 부사장을 제외한 총수 일가 지분(22.45%), 델타

항공(14.9%), 카카오(2%), 대한항공자가보험·사우회·우리사주조합(3.8%) 등 43.15%를, 이에 맞서는 3자 주주연합은 조 전 부사장(6.49%), KCGI(17.84%), 반도건설 계열사들(13.30%)을 더해 37.63%의 지분을 각각 확보한 상태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이 연임에 성공해도 3자 주주연합측은 회사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임시 주총을 이사회에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상법상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지닌 주주는 임시 주총 소집을 이사회에 요구할 수 있다.

결국 현재 상황에서 조 회장과 3자 주주연합측의 갈등은 주총이 끝나도 장기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재계 관계자는 “올해 주총 시즌이 시작됐지만 한진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면서 업계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며 “결론에 대해 양측이 서로 받아들이고 포기하지 않으면 경영권 분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위기를 기회로... 유휴 여객기, 화물기 활용”

대한항공 시장흐름 맞춘 대응
화물 수요 변화에 공급선 다양화

대한항공이 코로나19로 인해 운휴 중인 노선을 대상으로 여객기에 화물만 실어 운항한다.

대한항공은 15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불어닥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여객기를 화물기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최근 임원 회의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유휴 여객기의 화물칸을 이용해 화물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면 공급선을 다양화하는 한편, 주기료 등 비용까지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한항공은 세계 각국의 한국 출발 승객들에 대한 입국 제한으로 지



대한항공 항공기.

/대한항공

난 13일 기준 총 124개 노선 중 89개가 운휴 상태다. 또한 수요 감소로 인한 잇따른 감편으로 국제선 여객 운항 횟수는 평소 대비 86% 줄었다. 여객기가 운휴함에 따라 여객기를 통한 화물 수송도 크게 감소한 상태다.

대한항공은 우선 베트남 호찌민 노선에 이달 13일부터 20여톤의 화물을 탑재할 수 있는 A330-300 여객기를 투입해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들의 긴급 물량과 한국발 농산물 등 화물을 수송하

고 있다. 또한 지난달 25일부터 여객기가 운항하지 못하고 있는 청다오에는 오는 21일부터 여객기를 투입해 화물을 수송하는 등 대상 지역과 품목을 지속 넓혀갈 예정이다.

한편 대한항공은 한국발 여객노선 운휴뿐 아니라 미국의 유럽발 항공편 입항 금지 조치 등 코로나19로 인해 급변하고 있는 항공시장에 맞게 새로운 수요를 적극 창출해 나갈 예정이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기업결합심사’ 돌입

결합심사 후 이스타경영 정상화 추진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했다.

제주항공은 지난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스타항공과의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경쟁 제한성 평가를 위한 시장의 확정 및 제한성 평가 등을 판단하게 된다.

제주항공은 해외시장 중 경쟁제한성 평가가 필요한 태국과 베트남에도 기업결합심사를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할 예정이다.

제주항공은 공정위 기업결합심사가 마무리되면 잔금 납부 후 이스타항공 주식 취득을 통해 경영권을 인수하게 되고 이스타경영 정상화에 직접 나설 계획이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30일 내로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돼있다. 필

요시 최대 90일 연장을 통해 120일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항공사가 국가적 재난 수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제주항공 측은 신속한 인수거래 종결을 위해 공정위 기업결합심사가 조기에 마무리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인수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이 없기 때문에 최종 인수 전까지 이스타항공의 경영진 책임하에 당면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제주항공은 양사간 결합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이스타항공의 경영난을 빠르게 해소하고 항공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관련 부처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수지 기자

LGU+ “신속 처리·높은 접근성... 소비자 ‘디지털상담’ 선호”

日 평균 상담고객 중 67% 디지털상담

LG유플러스의 일 평균 상담 고객 28만명 중 67%에 달하는 18만8000명이 상담사 연결 없는 ‘디지털상담’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년 간 챗봇(채팅로봇)·고객센터 애플리케이션(앱)·ARS(자동응답) 등을 통한 디지털 상담 건수가 37% 급증했다고 15일 밝혔다. 같은 기간 상담사 직접 연결 건수는 23% 감소했다.



모델이 ‘디지털 상담’(고객센터 앱)을 이용하고 있다.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는 디지털 상담 건수가 일 평균 고객상담 2017년 13만7000건에서 지난해 18만8000건으로 약 37% 이

상 늘었다.

반면 전화상담, 채팅상담 등 직접적인 상담사 연결 건은 2017년 12만4000건에서 지난해 9만5000건으로 23.1% 가량 줄었다.

LG유플러스는 고객들의 ‘디지털 상담’ 선호 이유를 신속한 처리 시간과 높은 접근성으로 보고 있다. 전화 연결 및 대기에 소요되는 시간도 없고, 연중무휴 서비스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퇴근 후나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점으로 꼽힌다.

/김나인 기자 silkni@

현대차 “‘현대 커미션’ 전시 작가 ‘아니카 이’”

현대자동차는 영국의 현대미술관 ‘테이트 모던’에서 개최되는 ‘현대 커미션’의 2020년 전시 작가로 ‘아니카 이’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현대 커미션’은 지난 2014년 현대차와 테이트 미술관이 체결한 11년 장기 후원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대규모 전시 프로젝트로 현대미술의 발전과 대중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매년 작가 한 명에게 테이트 모던의 중심부에 위치한 초대형 전시장 터바인 홀에서 새로운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아니카 이’는 오는 10월 6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약 3개월간 터바인 홀에서 여섯 번째 현대 커미션 전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예술과 과학의 관계성을 탐구하는 예술가인 ‘아니카 이’는 새로운 형태의 생명, 지능의 발달에 관한 철학적 연구에 주목하는 동시에 이주, 계급, 젠더 등에 대한 현대 사회의 다양한 주제를 살펴왔다.

/양성운 기자